30~42커버스토리-3 2005.3.16 1:8 PM 페이지30 001 Acrobat™ PDFWriter

도룡뇽과 2.5조원의 血稅…갈수록 첩첩 泰山

- 새만금사업·경부고속철·서울외곽순환도로·경인운하 등 손실 금액 '눈덩이'

지난 2월 15일, 김태홍 국회의원 등 국회 산업자원위 열린우리당소속 의원과이희범 산자부장관등이자리를함께했다. 이날당정협의회에서나온결론은오는7월말까지 중저준위방사능폐기장용지선정을완료한다는 것. 지난 2003년 민란을 방불케 하는 '부안 사태'를 빚은 방폐장 용지를 새로 선정하겠다는것이다.

이번에는 확실한 당근이 주어졌다.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이주어진다. 「방폐장유치지역지원특별법」은2월 23일산자위의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전북 군산시는 벌써 방폐장 유치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의반대는여전히거세다.

국내 전력 수요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대해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처음 검토된 것은 지난 1986년. 당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경북 울진, 영일, 영덕 등3개후보지가선정되고지질조사도벌였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방폐장 후보지 선정에 들어간 것은 모두 7차례.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오는 2008년이면 울진의 방사성 폐기물 임시 보관소도 포화상태가 된다. 그때까지 방폐장이 완공되지 못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제대로 굴릴 수 없다. 전력대란을겪을지도모를일이다.

국책사업 표류, 갈수록 '태산'

대규모국책사업이표류하고있는것은비단방폐장뿐만이아니다. 지난2월11일이해찬 총리는 간부 회의에서 "5대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5대 국책사업은 새만금 사업, 신행정수도후속 대책,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사업, 고속철도 천성산터널공사, 주한미군기지평택 이전

대규모 국책사업 표류에 따른 손실

구분	공기 지연기간	손실규모
새만금 간척 사업	21개월	무산시 1조 7,000억원 손실
천성산터널 공사	3개월	6,300억원 추가 손실(이미 1조 9,000억원 손실)
사패산터널 공사	25개월	5,800억원 손실
경인운하	사업 표류	1,000억원 사업자 환급

30~42커버스토리-3 2005.3.16 1:8 PM 페이지31 001 Acrobat™ PDFWriter

사업등이다. 그러나, 이총리가언급한사업말고도 지지부진한 사업은 많다. 거의 포기 상태인 경인운하 사업을 비롯해 지금은 공사가 재개됐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사패산터널공사도2년넘게표류했었다.

더욱이서울외곽순환도로의경우사패산터널공사가오랜난항끝에해결의가닥을보이고 공정에 속도를 내자마자 최근에는 수락산터널공사가탈이났다. 인근사찰인 학림사의 스님들이 공사 피해 대책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간 것이다. 수락산터널공사(총길이 2.9km)는 지난해 11월부터 인근사찰3곳이경내균열과지반침하, 식수고갈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여 지난 달 4일 공사가 중단됐다가 18일 재개되었었다. 공사 중단 보름 만에 재개되었건만 또 다시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이다. 또한, 논산시 두마면과 공주시 반포면을 잇는 10km의 국도 1호선 공사 구간 가운데 계룡산 국립공원을 지나는 총연장 3.96km 구간을 터널식으로 공사하는 계획도 환경 단체들이 국립공원의 환경 훼손을 들어 거세게 반대하고있어난항이예상된다.

이처럼국책사업이표류하면서직접적으로끼친손실은금액을추산할수있는4개 사업만 해도 3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방폐장 유치 사업,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등은아직사업이시작되지않아표류에따른대규모비용은발생하지않았지만시작부터논란이된국론분열 등의 보이지 않는 비용에다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만큼 거기에 쏟았던 기회비용을감안하면실제비용은수십조원에달할것이다.

새만금 사업, 1조7천억원 날아갈 위기

새만금 간척 사업은 국책사업 표류의 전형적인모습이다. 지난1987년당시대선후보였던 노태우씨가호남표심을보고추진한 새만금 사업은 ‘ 급조된사업 ’이 겪어야 할운명을여실히보여주었다.

1991년 착공에 들어가고 당초 1996년 완공 목표였지만 완공 목표 시기를 9년이 지난지금도사업은표류중이다. 1996년시화호의수질문제가불거지자환경단체의반발로 표류하기 시작한 이 사업은 1999년, 2000년두차례나공사가중지됐었다. 최근에는법원까지 시민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시민 단체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정부계획 취소 등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3년 6개월 만에 법원이 내린결론은“ 새만금간척사업이부적절하다 ”는것이다. 농림부등정부는항고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과야 어쨌든 고등법원의 판결이나오기까지는2년여동안사업표류가 확실할 전망이다. 이제 공정 91%를 마치고 도언제간척지가나올것인지, 나오기는할 것인지 오리무중이다. 만일 사업이 무산된다면지금까지새만금간척사업에들어간1조 7,000억원은허공으로사라진다.

천성산터널, 도룡뇽이2조 5천억 날려

천성산터널 공사를 막은 지율스님의 단식은이미지난2003년부터시작됐다. 부산광장앞에서 시작된단식은몇차례중단과 재개를계속하더니올들어서는언론에서도

미니인터뷰 오동천 서울외곽순환도로제5공구현장소장(롯데건설)

“공사중단시시공업체는하루1억원손실입어”

수락산터널 공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이유는 무엇인지요?

학림사 스님들이 터널 공사시 발생한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사찰 경내 건물 및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고 약수가 고갈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피해 건물의 신축 및 약수 고갈과 수행 환경 피해 등에 대한 물질적 보상 요구로 16일 간(2005년 2월 1~16일) 수락산터널 입구부(금호건설 측)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사찰 측과 공사 진행 및 보상 협의를 병행키로 합의하여 공사가 재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학림사 스님들이 재차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가 어려움이많습니다.

만약 터널 공사가 다시 중단되면 전체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사업의목적은수도권의 종합적인수송체계 확립및 장기교통수요에효율적으로대처하고포화 상태에 있는서울북부및 경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흡수 · 우회 분산시켜 수도권지역교통흐름을 원활히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 국책사업인 이 공사가 지속적으로 중단되면 국민 혈세 부담 가중과 물류 비용 상승등국가경제에미치는타격이심각한수준일것으로생각됩니다.

공사 중단시 시공업체가 입게 될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요? 그리고, 종교및 환경 단체의 주장처럼 터널이 아닌 우회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요?

한달기준으로추정할경우공사중단대기비용이하루1억원으로약 30억원에달할것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 우회 노선 문제는 터널 전체 연장 중 약 300m를 제외하고 굴착이 완료된 상태로, 고속도로특성상 국부적인노선변경은 기술적으로곤란합니다. 뿐만아니라우회노선 개설시 국민혈세부담과추가적인환경피해가 가중되므로 합리적인 대안으로보기어려우며, 현 노선이사업성, 경제성, 교통 측면, 환경 측면 등에서가장 우수한노선이라할수있습니다.

이제 국책사업도 추진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세부평가항목(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등)에사전면밀한평가이행및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기획 단계부터 사회 각 계층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추진되어야할것입니다. CJ

30~42커버스토리-3 2005.3.16 1:8 PM 페이지32 001 Acrobat™ PDFWriter

관심이컸다. 70여일부터단식날짜를세더니 90일이 넘어가자 하루하루를 초를 세듯 중계 방송했다. 급기야100일 단식. 김수환 추기경, 이해찬 총리가 찾아가고 결국 정부가졌다. 정부와지율스님간의합의안은석 달 간 양측 동수 추천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당연히3개월동안은공사가중지된다. 이미 공사 지연으로 1조 9,0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은 석 달 동안 추가로6,300억원을날리게생겼다.

천성산터널공사가지연되는과정은상식 밖이다. 물론 '스님'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가침의무게와하루하루단식을세어나가는 네티즌과언론의공세는무시하기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단지 도롱뇽의 서식지라는 이유로2조5,000억원의혈세를낭비한다는 것은상식밖의일이다. 물론여기에는지율 스님의막무가내식단식이주요하게작용했 지만말이다.

정책은 선택의 과정이다. 선택에는 희비가따른다. 선택받은것과그렇지못한것사이에는 희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정책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또 희비로 인한갈등을조정할수있어야한다. 하지만 도롱뇽과 2조 5,000억원의 선택은 상식 밖이다. 물론 도롱뇽에게 우리가 모르는 무엇이있을수도있다. 도롱뇽이머지않아생태계에서'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정보 부족으로 이를 모를 수도있다. 때문에지금선택한도롱뇽이최소한 수십 만명의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2조 5,000억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식선에서 선택해야 한다. 만일 상식이무시된다면우리는가끔바퀴벌레가지구의주인일지모른다는주장에도귀기울여야 한다.

사패산터널, 5,800억원날리고 공사재개

천성산터널과닮은꼴로자주등장하는사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구간

패산터널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 구간을터널로뚫는일이다. 역시불교계의반대로 2년넘게 공사가중단되었다가재작년 말 재개됐다. 지금도 사찰의 반대로 원만하지는않지만2년넘게공사가지연되면서얻은손실은5,800억원. 당초내년6월이면일산에서퇴계원까지나머지반쪽의서울외곽순환도로가 건설될 수있었으나 시민들은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공사가 늦어지면서 건설업체가입게되는피해도상당하지만도로를 기다리는 것도 고스란히 세금을 낸 국민들의피해다.

사업비가1조8,000억원이넘었던경인운하 사업은 환경 단체들의 반발로 2003년 9월 사업이 아예 보류됐다. 이미 투자되었던 1,000억원은건설교통부가사업자에게돌려줬다. 무리한공약에따른무리한사업진행일 수도 있다. 1,000억원을날린 것이 사업비 1조 8,000억원을 날리는 것보다는 차라리잘된일일수도있다. 하지만경제성조사가철두철미하게이뤄졌는지아니면환경단체들의반발에여론을의식해쉽사리포기한 것인지는국책사업들이줄줄이표류하는것을봐서는쉽게확신이서지않는다.

정부의 철학 부재와 대안 없는 반대들

국책사업이 줄지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우선정부의철학부재탓이다. 네티즌을비롯한 광범위한 국민 참여로 정권 획득에 성공한참여정부의태생적한계라고지적할수도있지만일부시민단체의반발에대해정당성을확보하고서도원칙을고수하지못하는 것은 철학 부재 탓이다. 천성산터널에서 보듯이제는누구나맘먹고단식하면국책사업을막을수있다.

무분별한 공약 남발도 원인이다. 천성산터널이나사패산터널이나둘다노무현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우회 노선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만금 간척 사업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공약은 철저한경제성검토없이해당지역민들이뭘바라고있느냐를기준으로만들어지기때문에 정작 정권을 잡은 뒤에는 자충수가 되기 쉽다. 이와는 반대지만 지역 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무리하게사업을추진하는것도국책사업표류의원인이다. 방폐장유치를둘러싼부안사태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공약 남발이나 무리한추진, 둘다정부의철저한준비부족이라고할수있다.

환경 단체와 시민 단체의 대안 없는 반대도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국정 연설에서"시민사회도 저항적 참여보다는대안을내놓는창조적인참여에중점을 두고 활동해 달라"고 요구했다. 맞는 말이다.

사패산터널 공사를 혈혈단신으로 막았던 보성스님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농성하면서사패산터널대안으로불교계와환경단체등이제시한'대안노선'을직접둘러봤더니 하나는도로로서 기능하기가어렵고하나는 군부대등에막혀건설이불가능하다고생각했다"고 말했다. 제대로 대안이 없는 반대였다는 반성이다.

박성태
한국경제TV 기자